

국회도 못 푼 축구협회 의혹

# 문체부 감사 결과 발표 '이목집중'

정몽규·홍명보·이임생  
"선임 절차 문제없었다"  
감사 결과 내달 2일 발표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여러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내달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발표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4일 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지난 5일 문체위는 축구협회 운영 실태, 감독 선임 과정 논란과 관련해 홍명보 감독, 정몽규 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날 출석했다.

맹점 중 하나는 축구대표팀 부임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홍 감독이었다.

지난 7월 축구협회는 반년에 가까운 시간을 쏟아 홍 감독을 선택했지만, 외국인 감독 후보였던 데이비드 바그너, 거스 포엠티와 달리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비판에 시달렸다.

하지만 축구협회 인사들은 이와 같은 주장들을 전면 부인했다. 홍 감독은 "불공정하다거나 특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로 이 이사한테 들어서 감독직을 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금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전 기술위원회의 추천에 반해 뽑은 적은 단 한번도 없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국회 문체위는 축구협회 해명이 납득이 가지 않자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전

력강화위원회의) 11차 회의도 불법이고, 이 이사가 위임받은 부분도 불법이고, 그 불법의 토대 위에서 서류 제출도 안 하고, 사전 면접도 안 하고, 실제 대면 면접을 한, 실적을 한 홍 감독이 감독으로 선임됐다"며 꼬집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홍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이 대단히 역지스럽고, 그 과정 중에 절차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특정 학교의 학연에 근거한 카르텔이 있

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 정도"였으며 증인으로 나선 축구협회 인사들을 비판했다.

이제 시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감사 결과에 집중된다.

지난 7월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해 감사로 전환했으며, 내달 2일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증인으로 동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는 중요하다.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축구협회를 감사하고 있다. 10월 2일 이 부분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 전했다.

홍 감독이 실제 외국인 감독 후보들과 달리 불공정한 과정으로 부임했는지, 이 이사가 최종 결정 전권을 위임받은 것에 문제가 없는지, 전력강화위원회가 얼마큼 정상 작동했는지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더불어 정 회장의 4선 연임 도전 가능성과 관련한 문제, 축구협회의 문체부 참신 없이 전인축구센터건립 과정에서 600억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핀 논란 등도 함께 이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감독과 정 회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이번에도 각종 논란을 달지 못한다면, 한국 축구를 향한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정강선 회장 등이 '제52회 봉황대기'와 '제79회 청룡기'를 우승한 전주와 아구부에 대한 우승 격려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올해 고교 야구계 한 획 긋다

전북체육회, 봉황대기·청룡기 우승 전주와 아구부 격려  
투수 정우주 등 선수 6명, 프로야구단의 지명받아 입단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가 올해 고교 야구계에 한 획을 그은 전주고등학교 야구부를 초청, 축하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했다.

29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제52회 봉황대기'와 '제79회 청룡기'를 우승한 전주고 야구부에 대한 우승 격려회를 열었다.

전주고 야구부는 올해 신세계 이마트배 준우승, 청룡기 우승에 이어 한국의 고시연으로 불리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도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고교야구 최강팀으로 우뚝 섰다.

또 '2025 KBO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투수 정우주 등 선수 6명이 프로야구단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프로에 입단하게 됐다.

도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전주고 야구부가 메이저 대회에서 보여준 투혼과 성과는 도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전북 체육의 명예를 드높였다"며 "다음 달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서도 당당한 모습과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 28일 '제4회 장수트레일레이스' 본대회 개최

국내외 선수 포함 1800여명 참가

'한국의 사모니' 장수군에서 '제4회 장수트레일레이스'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27일부터 선수등록이 시작되며 28일부터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된다.

이번 대회는 20K, 38K-P(팔공산), 38K-J(장안산), 70K, 100K 총 5개 코스로 진행될 예정이며 국내외 해외 선수를 포함해 1,8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트레일러닝'은 트랙이나 아스팔트 도로가 아닌 잔디나 흙, 숲길 등 자연을 달리는 스포츠로 장안산, 팔공산, 동춘리 고분군, 승마로드 등 장수의 주요 관광명소를 코스로 해 장수만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달릴 수 있다는 큰 매력을 지니고 있다.

28일 본 행사장(장수종합경기장)에서는 지역 농산물 판매 부스와 먹거

리, 체험부스 등이 운영되며 장수트레일레이스를 후원하는 각종 브랜드 부스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오후 14시부터는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 공연도 예정돼 있다.

'장수트레일레이스'를 주최·주관하는 장수러닝클럽의 김영록 대표는 "이번 대회에서 새로 선보이는 100K코스는 장수군의 주요 관광지인 봉화산철쭉관람지를 코스로 하고 있다"며 "장수군의 아름다운 주요 관광지들을 더 많은 선수들에게 알리고 지역 청년들과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회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트레일레이스'의 혁신적인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장수군 청년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트레일레이스의 국제대회 승격과 장수군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프로스포츠 활성화' 도민 의견 수렴의 장 마련

도내 프로스포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과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6일 오후 2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은누리홀에서 '프로스포츠 활성화 방안 공개토론회'를 열어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방안, 구단과 지자체 간의 협력적인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KCC 이지스 프로농구단이 부산으로 연고지를 이전하여 도내에 연고지를 둔 프로스포츠 구단이 전북 현대모터스가 유일한 가운데 열리는 공론의 장으로 전북 프로스포츠 발전에 기여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전북연구원, 오늘 전주대 스타센터서 공개토론회 개최  
구단 유치·지자체와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

모으고 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이명연 전북자치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전주대학교 윤찬영 대외부총장, 강승목 문화융합대학장 등이 자리를 함께한다. 또한, 전북자치도, 전주시 체육 정책 담당자와 프로스포츠 분야 전문가 및 팬들이 모여 현장 중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전문가 발제에서는 김상훈 한국스포츠과학원 스포츠산업연구실장이 '전북특별자치도 프로스포츠 활성화 방

안'이란 주제로 △프로스포츠 가치에 대한 인식개선 △경기장 환경개선 △지자체-프로구단 협력체계 △프로구단 지역사회 공헌 강화 등의 정책적 대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전주대 진연경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형원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역할정립), 홍성택 전주대 교수(구단유치), 송지환 전주교대 교수(거버넌스), 최우식 랜드마크 대표변호사(연고도시)가 프로스포츠 각 부문의 대표자로 나서서 중점

과제에 대한 솔직한 의견과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토론 이후에는 현장에 참석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간다.

공개토론회를 마련한 이남호 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 계기를 마련하고, 연고지 지속가능성 제고와 구단과 지자체 간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전북특별자치도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 제8회 전북특별자치도 아리움 어버이 하차제

2024년 9월 28일(토) 오후 4시~

##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강당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 출연 합창단



부안여성합창단



정음 Ever green 합창단



전주교육지원청 합창단



크로스여성합창단



전북 CBS레디미스 관악합창단



전주시민합창단